



월드컵 퍼스트 히스토리 ⑬

우루과이 기지야 결승골 통곡의 바다 된 말라카낭

확실히 축구공은 등글었다. 우루과이는 1950년 월드컵의 사실상 결승전에서 브라질의 아데미르-자이르-지지뉴 트리오의 매서운 공격을 잘 막아냈다. 전반을 무실점으로 버텼다. 후반 2분 브라질 프리아사의 골이 터졌다. 관중들이 열광했다. 후반 21분 우루과이 스킨아피노가 만회골을 넣었다. 순간 20만 명 가까운 브라질 관중들이 가득 찬 말라카낭 경기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 무서운 침묵에 브라질 선수들은 평정심을 잃었다. 그 틈을 우루과이가 비집고 들어갔다. 기지야가 후반 34분 브라질 수비라인에서 가장 약점이었던 비고테를 제치고 골문 쪽으로 달려들며 날린 슈이 네트를 흔들었다. 그 한방으로 승패는 갈렸다. 침묵은 비탄으로 바뀌었다. 시상식은 장례식 같았다. 브라질축구협회의 어느 누구도 우승트로피를 우루과이 주장에게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다. FIFA 줄 리메 회장이 홀로 그라운드에 나가서 우루과이 선수에게 트로피를 안겼다. 몇몇 브라질 선수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이를 지켜봤다. 몇몇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라커룸으로 피신했다. 선수들은 성난 팬들이 두려워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했다.

기지야의 그 골은 브라질의 모든 축구팬들에게 영원한 금기어였다. 예상 못한 패배는 몇몇 극성팬에게는 죽음을, 대부분의 브라질 사람들에게는 슬픔을 안겼다. 선수들은 테러 위험 때문에 한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다.

결승골을 내준 골키퍼 바르보사를 포함해 수비수 비고테, 주베날은 오랫동안 브라질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

말라카낭의 쇼크 이후 20년이 지나도 팬들은 그 경기와 패배의 주역을 잊지 않았다. 은퇴한지 한참 지나서 바르보사를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본 여자 팬이 아들에게 “저 사람이 브라질을 온통 울음바다로 만든 사람이야”라고 소곤거렸을 정도였다.

2000년 세상을 떠난 바르보사는 “브라질에서 범죄자의 최고형량은 30년이지만 나는 브라질에서 50년을 복역했다”는 한탄의 말을 남겼다.

제4회 월드컵은 브라질에게 많은 슬픔을 안겼지만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입장관중 100만명을 돌파한 성공한 대회로 남았다. 마침내 월드컵이 올림픽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새로운 매스미디어 환경과 슈퍼스타의 등장으로 월드컵의 앞길은 탄탄해졌다.〈끝〉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러시아월드컵 결산 ① 젊은 피, 러시아를 집어삼키다!

바야흐로 ‘열아홉’ 음바페 시대

한 달간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2018러시아 월드컵이 프랑스의 통산 두 번째 우승과 함께 성대한 막을 내렸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조별리그 A조 개막전부터 프랑스-크로아티아의 결승전까지 64경기 내내 감동과 환희, 눈물의 드라마가 연출됐다. 초록 그라운드에서 쟁쟁한 스타들이 치열하게 부딪혔고, 환상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보는 즐거움을 충분히 선사했다. 전통의 강자들이 일찌감치 짐을 꾸리고, 그 자리를 새로운 강호들이 채워가면서 전 세계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3회에 걸쳐 러시아월드컵을 되 돌아본다.

- 글 쓰는 순서 -
① 젊은 피, 러시아를 집어삼키다!
② 힘 못쓴 전통의 강호, 한 시대가 저물다!
③ 사라진 점유율 & 아시아 분전 새로운 패러다임

축구는 철학이다…데상이 남긴 교훈

최현길의 스포츠에세이

승리 철학 녹인 실리축구로 우승 한국도 소신 있는 감독 영입해야

손에 땀을 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언더독(이길 확률이 적은 팀)을 열심히 응원한 건 사실이다. 크로아티아가 자책골과 페널티킥(PK)을 허용할 때는 힘이 쏙 빠졌다. 프랑스 선수의 과장된 동작에 심판이 속았다는 억울함과 저게 PK가 맞나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동점골이 터졌을 때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마치 한국축구를 응원하는 것처럼 말이다.

2018러시아월드컵 16강부터 3경기 연

결승전 골·영플레이어상 10대의 반란 케인·픽포드도 젊은 삼사자군단의 핵 벨기에 황금세대, 역대 최고성적 맹위

푸릇한 청춘들의 향연이었다. 젊은 피들이 러시아를 뒤흔들었다. 1998년 자국대회에 이어 20년 만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은 프랑스는 러시아 여정에 참여한 32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어린 팀이다. 평균연령 26세. 가장 젊은(25.9세) 선수단을 꾸린 나이지리아와도 별반 차이가 없다. 이번 월드컵에서 4골을 기록하는 등 가장 번득이는 활약을 펼쳐 영 플레이어상(기존 신인상)을 수상한 프랑스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의 나이는 만 19세. 대회 기간 레알 마드리드와 FC바르셀로나(이상 스페인) 등 유럽 최강 클럽들이 몸값 1억 유로(약 1320억 원)를 책정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세계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다.

속 연장승부를 펼쳤던 크로아티아 선수들은 결승에서도 투사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치전 기색이 거의 없었다. 어떻게 저렇게 뛸 수 있을까하는 존경심이 들 정도로 실 새 없이 몰아쳤다. 하지만 프랑스는 철옹성이었다. 알미울 정도로 잘 막아냈다. 팀이 보이긴 했지만 곧바로 메웠다. 90분 동안 방정함을 잃지 않았다.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상대를 물리쳤다. 점유율 39%로도 우승은 충분했다. 데상 감독의 실리축구가 빛을 발했다. 우리가 알던 '아트(Art)'를 지워버렸다. 화려한 대신 오직 이기기 위한 작전으로 수를 놓았다. 데상이 “엄청난 경기를 하진 못했지만 정신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승리할 자격이 있다”고 말한 우승 소감이 그의 철학을 대변해준다.

특히 엄청난 성장속도를 보여준 음바페는 나이로 보나 기량으로 보나 2년 뒤 유럽 선수권, 다가올 2022카타르월드컵이 더욱 기대되는 자원이다. 물론 젊은 피가 활력을 불어넣은 건 프랑스가 유일하지 않다.

비록 4위에 머물렀으나 '축구종가'의 자존심을 모처럼 지킨 잉글랜드도 황금세대를 확실히 키워냈다는 평가다. 프랑스와 함께 평균연령 26세를 찍어 눈길을 끌었다. 6골을 몰아치면서 대회 득점왕에 오른 해리 케인(토트넘 홋스퍼)은 만 24세. 페널티킥(PK)으로 3골을 뽑아 영양가가 없다는 혹평도 있으나 최고 수준의 스트라이커임에는 틀림없다. 잉글랜드에 끊임없는 고민을 안긴 포지션인 골키퍼도 특급 스타가 탄생했다. 조던 픽포드(24·에버턴)다. 승부차기 킥을 막고, 안정된 몸놀림으로 젊은 '삼(3)사자 군단'에 큰 힘을 불어넣었다.
평균연령 27.6세의 벨기에도 황금세대가 대단한 영예

음바페

2012년부터 프랑스를 지휘한 데상이 가장 잘한 건 제대로 된 조직력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이번 대회 출전국 중 가장 몸값이 비싼 팀이다. 개성 강한 어린 선수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자기 잘난 맛에 축구를 할 수도 있었다. 자칫 팀워크가 붕괴돼 자멸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데상의 리더십이 이런 우려를 씻어냈다. 자신보다는 동료들 먼저 생각하고, 팀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물론 풍겼다. 이는 선수가 감독을, 그리고 감독이 선수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에만 가능한 분위기다. 이게 우승 원동력이다.
데상을 통해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그는 한 사람의 감독이 대표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감독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다. 전술 주입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한 팀이 나아갈 방향을 설계하는 위치다. 그 그림 속에서 선수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선수들이 자

를 일궜다. 벨기에축구협회 차원에서 공동 여 성장시킨 영건들은 조국에 역대 최고성적인 3위를 안겼다. 4년 전 브라질대회에서 8강을 거친 붉은 전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졌다. 실력에 관록과 경험이 더해지자 무서울 것이 없었다. 케빈 데 브라위너(27·맨체스터시티)~에당 아자르(27·첼시)~로멜루 루카쿠(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티보 쿠르투아(26·첼시) 등 20대 중반 베테랑들은 러시아에서 맹위를 떨쳤다.

반면 남미 양대 산맥인 브라질(28.6세)과 아르헨티나(29.2세)는 30대 노장들로 경험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성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 2010년 남아공대회를 평정한 뒤 브라질에서 망신을 경험한 '무적함대' 스페인도 절치부심했으나 세대교체에 실패한 케이스다. 묵직한 평균연령 28.5세로는 젊은 상대국들의 패기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왜 각국 대표팀에 꾸준한 세대교체가 필요한지, 신선한 젊은 피를 어찌서 수혈해야 하는지 명확한 결과로 증명한 러시아월드컵이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스포츠

동아시아 프로농구 최강자는 누구?

오늘 마카오서 '서머슈퍼8' 팡파르 한국·중국·일본·대만·필리핀 격돌

동아시아 5개국 프로농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서머슈퍼8(Summer Super 8)'이 막을 올린다. 마카오 동아시아게임돔에서 17일(한국시간) 개막하는 서머슈퍼8은 비시즌 휴식기를 활용해 선수 발굴과 전력강화를 꾀하는 전지훈련 성격의 친선대회다. 여름을 맞아 새 시즌 준비를 시작한 선수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2018~2019시즌 체제에 돌입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서머슈퍼8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5개국 프로농구에서 모인 8개 구단이 자유를 겨룬다. 한국에선 인천 전자랜드와 서울 삼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신장 플라잉 타이거스와 광저우 롱 라이언스(이상 중국), 라이징 제퍼 후쿠오카(일본), 포모사 드림러스(대만), 블랙위더 엘리트, NLEX 로드 워리어스(이상 필리핀) 등이 우승을 놓고 경쟁한다.

지난 2017~2018시즌 각각 6위와 7위에 오른 전자랜드와 삼성은 이번 대회에서 새 얼굴을 발굴하겠다는 목표다. 외국인선수들이 아직 팀에 합류하지 않은 데다 일부 주축선수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탓이다. 두

서머슈퍼8 조편성	
A조	B조
인천 전자랜드	서울 삼성
신장 플라잉 타이거스(중국)	광저우 롱 라이언스(중국)
포모사 드림러스(대만)	블랙위더 엘리트(필리핀)
NLEX 로드 워리어스(필리핀)	라이징 제퍼 후쿠오카(일본)

팀은 이번 대회에 앞서 국내 합동훈련과 연습경기를 소화하면서 기초 전력을 다진 뒤 16일 출국길에 올랐다.

서머슈퍼8에 처음 출전하는 전자랜드는 가드 박찬희(31·190cm)와 포워드 강상재(24·200cm)가 국가대표 차출로 빠진 상태고, 지난해에 이어 올 여름에도 마카오로 향하는 삼성은 가드 김태술(34·180cm)과 포워드 문태영(40·194cm)이 부상으로 국내에 잔류한다.

서머슈퍼8에 참가하는 8팀은 A조와 B조로 나뉘어 17일부터 19일까지 예선 풀리그를 소화한다. 이어 각 조 상위 2개 팀이 21일 준결승전을 치르고, 다음날인 22일 3·4위전과 결승전이 열린다.

한편 대회 기간 중에는 국제농구연맹(FIBA)으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서머슈퍼 8 코치 클리닉'과 'FIBA 엘리트 심판 양성 캠프'도 함께 진행된다. 코치 클리닉에는 KBL 황인태 심판과 WKBL 김중국 심판이 참가한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남북이 함께!' 2018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남북 단일팀을 꾸려 여자복식에 출전하는 한국 서효원(앞)과 북한 김송이가 16일 대전 중구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첫 합동훈련에서 호흡을 맞춰보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순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효원과 김송이는 훈련을 마친 뒤 만족감을 표시했다. 대전 | 뉴스